

제주도민의 초생아복과 그에 나타난 의식 (濟州道民의 初生兒服과 그에 나타난 意識)

단국대 高 富 子

<檀國大民俗博物館研究員>

目 次

- | | |
|------------------------|-----------------|
| 1. 머리말 | 2) 재료 및 제작자 |
| 2. 濟州島服飾의 二重構造와 특징 | 3) 형태 및 제작법 |
| 3. 初生兒服 | C. 붓뒤창옷의 특성(俗性) |
| A. 出生직후의 被服 | 4. 意識 |
| B. 三·七日 옷(세이레옷 : 붓뒤창옷) | 5. 맺는말 |
| 1) 명칭 | |

1. 머리말

삼성신화(三姓神話)로부터 시작(B.C.2337年)되는 제주도(濟州島)(이하 본도(本島)라 함) 역사는 자치국(自治國)인 탐라국(耽羅國)이 B.C.53年 신라(新羅)를 시작으로 한반도(韓半島) 삼국(三國) 및 중국(中國) 일본등지(日本等地)와 교류가 시작된다. 차츰 중국대륙(中國大陸)과 한반도(韓半島) 제국(諸國)의 정세(政勢)변화에 따라 예속·종속 관계를 갖게 되는데 고려(高麗) 때는 원종(元宗)14年(1273年A.D.)부터 약 1세기에 걸쳐 원(元)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으며, 조선조(朝鮮朝)에 와서는 유배지 또는 탐관오리들의 횡포지가 되고 말았다. 중앙(中央) 집권체제의 실책은 원(元)의 지배 1세기 동안 이중국적인(二重國籍人)으로서 강요되어지는 갖가지 부담과 함께 왜구(倭寇)들의 빈번한 침략과 약탈행위에 대한 자체방위라든가, 더욱이 조선조(朝鮮朝) 인조(仁祖) 7년(1629 A.D.) 이후 200여년간에 걸친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은 견딜 수 없는 생활고(生活苦)를 가중시켰다. 또한 도민(島民)들은 본도(本島)가 안고 있는 지형적(地形的)인 특수성인 박한 풍토(風土) 때문에 식량(食糧)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문화(文化)가 단절되었다든가, 사면(四面)이 바다이지만 심한 풍파와 어로기술이 발달치 못한 데다가 왜구(倭寇)의 출몰로 인한 민생(民生)의 불안등 갖가지 악조건(惡條件)속에서 섬속에 갇힌 채 죽지 못해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본도(本島)의 생활상(生活相)은 정치적인 외적요소(外的要素)와 자연(自然)환경에서 기인되는 내적요소(內的要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최

선의 방비책을 스스로 익혀가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며, 이런 토착민(土着民)들의 생활(生活)기반에다가 외래(外來)의 유입요소(流入要素)가 가미(加味)되어 이중구조(二重構造)내지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것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외(外)·내적(內的)으로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남기 위한 생활(生活)의 방편책으로 얻어진 본도민(本島民)들의 슬기를 찾고자 함에 있다. 더 나아가 물질만능의 세대, 과학만능세대에 처해 있는 현시점에서 의생활(衣生活)의 기저(基底)에 놓인 정신상을 찾아 내어서 상실하고 있는 민족성(民族性)을 재발견코자 하는데 또한 목적(目的)이 있다. 따라서 우리 한민족(韓民族) 조상들이 수 많은 외적(外的)침략과 내적(內的)분쟁기를 거치면서도 오늘의 역사를 지탱하여 온 슬기를 좁게는 제주(濟州)섬에 간혀 살아 왔던 토착서민(土着庶民)을 대상으로 한 연구(研究)를 시발점으로 하면서, 넓게는 한민족(韓民族)의 복식착장(服飾着裝)에 대한 원류(原流)를 찾고자 하는 작업(作業)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또한 복식(服飾)의 유물사론적(遺物史論的) 또는 형상(形狀) 파악의 형태적인 면보다는 토착서민(土着庶民)들의 일상생활사(日常生活史)를 통하여 표출(表出)되고 있는 정신적인 내면세계(內面世界)를 복식(服飾)을 통하여 그 고유성(固有性) 정통성(正統性) 지역성(地域性)들을 찾고자 함에 시작된 것이다.

이 시도(試圖)는 우리나라 복식연구(服飾研究)는 신라(新羅)가 당제(唐制)를 채택하여 받아 들인 당복속기(唐服屬期)에서부터 조선조말기(朝鮮朝末期)까지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에 의해서 중국복속화(中國服屬化)한 상층사회(上層社會)의 복식연구(服飾研究)들에 의존하고 있음에 대하여 시기적(時期的)으로 서민(庶民) 대중의 것, 즉 우리의 것을 빨리 정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적인 부응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본자료(本資料)는 필자(筆者)가 「제주도복식(濟州島服飾)의 민속학적(民俗學的) 연구(研究)」¹⁾를 시작한 이래 계속되고 있는 작업(作業)인데 도내(島內) 전지역(全地域)에 걸쳐 살고 있는 토착서민(土着庶民)들에게서 얻어진 것들이다. 주로 해방 전후(前後)에 걸쳐 혼인(婚姻)과 출산(出產)을 경험한 세대(世代)들과 그들이 조상(祖上)에게서 듣고 행하여졌던 경험담들까지 종합한 것으로서 조선조후기(朝鮮朝後期) 제주도민(濟州島民)들의 복식착장(服飾着裝)의 자료(資料)들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현존(現存)하는 실물(實物) 몇점에 대한 사진을 첨가하였다.

2. 제주도복식(濟州島服飾)의 이중구조(二重構造)와 특징

기록(記錄)에 의하면 “최초의 삼신인(三神人)들은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고 살았으며,²⁾ “위에는 가죽옷을 입었으나 아래는 입지 않았고,³⁾ “남녀가 짚신을 즐겨 신었다.”⁴⁾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피복(被服)착용의 제1차 단계로서 자연발생적(自然發生的)으로 일어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과정이다. 차츰 정치(政治)체제과 확립되어 귀(貴)·천(踐)과 지배층 피지배층의 계급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신분을 구별하고 상징시킬 수 있는 제2의 단계가 생긴 것이다. 이런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비교적 외부(外部)

1) 高富子 『濟州島服飾의 民俗學的研究』 1971. 梨大 碩士學位 청구논문.

2) 『瀛州誌』 筆者未詳. 麗末~朝鮮初?

3)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列傳 第七十五

4) 李元鎮著 『耽羅誌』 p 1653.

와의 교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복식(固有服飾)을 형성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점차 외부(外部)와의 교류가 심하여지고 전쟁등에 의한 인구의 이동, 통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고유(固有)체제 위에 외래(外來)의 것에 의한 모방 습합 조화의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고유(固有) 토착(土着)의 형태 위에서 서서히 변화하여 이중구조(二重構造)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본도(本島)가 신라(新羅)때부터 조공부庸(朝貢賦庸)을 거쳐 조선조말(朝鮮朝末) 현재(現在)에 이르기까지도 본토(本土) 행정(行政)의 지배를 받아오고 있는 동안에 육지부(陸地部)에서 파견된 관직자(官職者) 및 그 수행원과 가족(家族)들에게서 형성(形成)되어졌던 본토(本土)양식과, 몽고민(蒙古民)에 의해서 유입(流入)되어온 몽고계(蒙古系)의 대륙양식(大陸樣式)등 타지유입양식(他地流入樣式)과 본토토착민(本土土着民)들 사이에서 준수되어 왔던 재래양식(在來樣式)과의 사이에서 이중구조(二重構造)를 형성(形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구조(二重構造) 현상을 김동욱(金東旭) 교수(教授)는

「국제(國制)와 중국제(中國制)와의 사이에서 계속 내재(內在)하여온 한국복식(韓國服飾)의 특색(特色)처럼 상층위정자(上層爲政者) 계층(階層)의 중국문화(中國文化)에의 심취(心醉) 내지(乃至) 동화(同化)와 하층민(下層民) 계층(階層)의 농촌사회적(農村社會的) 정체성(停滯性) 그대로 구습(舊習)에 젖어 있다는 것은 사상(思想) 생활(生活) 습속(習俗) 기지(其地)에 걸친 한반도적(韓半島的) 성격(性格)과 거대(巨大)한 중국민족(中國民族)의 존재(存在)로 말미암은 필연(必然)의 자세(姿勢)였다고도 볼 수 있다. 복식(服飾)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승(傳承)되어 내려온 고대(古代)의 패턴이 있을것이다」⁵⁾ 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본도(本島) 토착(土着) 생업민(生業民) 사이에서 착용(着用)되어온 생업복(生業服) 즉 노동복(勞動服)과, 관직자(官職者) 즉 중앙(中央)에서 파견되었거나 또는 유배자(流配者)와 그 가족(家族) 및 본도민(本島民)중에서 관직(官職)에 오른 자(者)들이 의례(儀禮) 시(時)에 품위(品位)를 갖추기 위해서 입는 의례복(儀禮服) 사이에서 또한 이중구조(二重構造)가 형성(形成)된 것이다.

따라서 본도(本島) 토착민(土着民) 양상은 북방계(北方系)인 대륙양식(大陸樣式)에 본도(本島) 토착민(土着民)의 고유양식(固有樣式)과 습합조화(習合調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업민(生業民)들 중에서도 목축(牧畜) 주업(主業)으로 하는 산간지방(山間地方)의 유목민과, 어촌에서 바다를 세상으로 하여 생업(生業)하는 어부와, 중산간(中山間)부락에서 농민(農民)들은 기후적응과 노동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피복(被服)을 착용(着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각기 목축을 업(業)으로 하는 목자(牧者)들에게서는 가죽제 피복(被服)인 가죽감투를 비롯하여 개(쇠)가죽 두루마기라든가 가죽발레 가죽버선 감실신 태왁등이 이용되어 졌고, 농부(農夫)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勞動者)들에게 갈 옷이, 바닷가에서 잠수(潛水)하는 잠녀(潛女)들은 물소중이를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생활(生活) 및 노동시(勞動時)의 일상복(日常服) 작업복(作業服) 외에 의례복(儀禮服)으로는 관원(官員)이 관복(冠服)으로 또는 의례복(儀禮服)으로 착용(着用)되는 옷들을 선호하여 착용하였으니, 혼례(婚禮) 때 신랑의 사모관대(紗帽冠帶)차림이라든가 신부(新婦)의 원삼(圓衫)차림이 그 예(例)이다. 또한 상(喪)을 당했을 때는 아무리 가난해도 오복제(五服制)에 의한 상복(喪服)⁶⁾을 마련하고, 삼년상(三年喪)치르기에 소홀함이 없었으니 의례(儀禮)와 일상생활복(日常生活服) 사이에는 뚜렷한 이중구조(二

5)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6) 高富子 『濟州島民의 喪禮에 나타난 服飾』 1985. 12. 濟州島研究 제2집

重構造)현상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도(本島)의 제주고유복식(濟州固有服飾)형태가 남아 있는 마지막 시기는 해방전후 사(四)·삼사건(三事件)⁷⁾까지라고 볼 수 있다. 사(四)·삼사건(三事件)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은 물론, 거주지의 이동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완전히 빈손으로 다시 새 출발이 시작됨으로 해서 구(舊)와 신(新)의 새로운 교차점이 되었다.

3. 초생아복(初生兒服)

본고(本稿)에서 초생아(初生兒)라 함은 출생(出生) 직후부터 3, 7일 또는 7, 7일 동안의 어린아기를 말하며, 초생아복(初生兒服)이라 함은 이 기간 중에 입히는 옷을 말한다.

초생아복(初生兒服)은 출생(出生)후 3일만에야 입히게 되므로 3일이전까지의 초생아를 끄리는 피복(被服)과정도 보충하였다. 이는 초생아복(初生兒服)을 입히기 이전까지 피복(被服)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A. 출생(出生) 직후의 피복(被服)

아이를 낳으면 배꼽처리를 마친 뒤⁸⁾ 남자(男子)의 노동복(勞動服)인 갈중이에 싸서 아랫목에 눕혀둔다. 갈중이는 남성(男性)의 여름용(用) 하의(下衣)인 훌바지(고의(袴衣))에 다가 감물(시즙(柿汁))을 들인 옷이다.

갈중이는 갈옷가운데 한종류로서 남녀(男女)가 아래 입는 옷을 통털어 갈중이라고도 한다.

갈옷은 본도(本島) 농(農)·산(山)·어촌민(漁村民)들이 노동(勞動)할 때 입는 대표적(代表的)인 작업복(作業服)으로 형태는 여름용(用) 한복(韓服)의 기본(基本)으로 남자(男子)는 적삼(赤衫)에 고의(袴衣)를, 여자(女子)는 적삼(赤衫)과 속곳을 이용한다. 일단 옷을 만든 다음에 7, 8월에 풋감을 따서 으깨어 나온 감물을 들인 뒤 10여일 동안 직사광선에서 물을 축이면서 앞 뒤 고루 말리면 노동복으로 적합한 갈옷이 된다. 갈옷은 질겨서 한벌이면 2~3년은 족히 입을 수가 있으며, 낡으면 다른 갈옷들을 기워 입는다든지 아기들의 기저귀나 걸레로 이용된다. 특히 남자(男子)들이 입었던 것은 초생아(初生兒)를 싸는 포대기로 쓰이다가 가지귀가 된다. 이 옷은 무명으로 된 것이며, 시즙(柿汁)으로 염색하였기 때문에 감물이 갖는 방부제(防腐劑)역할이 땀이나 물이 배어도 잘 마르고 쉽게 썩거나 상하지 않을뿐더러 더러워 지지도 않고 또, 더러워져도 쉬 나타나질 않으므로 자주 빨 필요가 없고 또 세탁이 용이하여 아기들의 기저귀감으로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되었다. 또한 갈옷의 색상이 처음에는 황토색의 붉은 벽돌색 빛갈이던 것이 차츰 퇴색하면서 흑갈색으로 변화된다. 그러므로 갓 태어난 핏덩이 초생아(初生兒)에게는 적합한 포대기감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노동복인 헌 바지로 싼다는 것은 새 생명체(生命體)에 대해 소홀한 감이 없지 않으나 “미정괴정 밥줄인 있어도 미정괴정

7)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事件. 7년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道內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희생된 인명의 숫자는 지금도 거론이 되고 있을 만큼 매우 많았음) 中山間 부락 및 일대의 농토가 황폐하여 거주지의 이동이 심하였다.

8) 高富子 『濟州島の産後俗』 한국민속학 9호. 1976. 12

옷줄인 없다. 옛말에도 ‘식사하고 가시요’라는 인사말은 있으나, 추운 날씨에도 옷한벌 주면서 입힌 적은 없었으며 옷이 낡으면 꿰매고 또 꿰매어서 누비옷 이상이였다. 조금이라도 덜 떨어진 곳이 있으면 도려내서 큰 옷은 작게 만드는데 쓰이며, 실 한오라기라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었으니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 무슨 옷이 있겠느냐”⁹⁾고 한다. 특히 남자(男子)의 갈증이에 싸야 하는 이유로는 “남자(男子)는 골격이 크고 힘이 세므로 체력적인 면에서도 여자(女子)보다 우세하며 또 여자(女子)를 천시 여기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내재(內在)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아기를 끄릴 때는 갈증이를 펴놓고 밑가랑이 쪽에 아기의 머리를 두고 양쪽 바지통이 아기의 가슴과 배 위로 오게 하여 덮어 싸면 어깨로부터 전신이 싸인다. 쌀 때는 아기가 움직이거나 팔을 내놓지 못하도록 잘 싸야 한다. 손이 나와서 얼굴을 핥거나 하면 상처가 나기 쉽고 또 어깨나 몸에 바람이 들면 경기(驚氣)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B. 삼(三) · 칠일(七日) 옷(세이레옷:붓뒤창옷)

1) 명칭

지역에 따라 붓뒤창옷이라든가 배창옷 배옷 붓뒤적삼 삼칠일옷 등으로 명칭은 다양하나, 주로 붓뒤창옷이라고 부르고 있다. “붓”은 자궁(子宮)을, “뒤”는 자궁(子宮)에서 분리된 다음에 시간을, “창옷”은 홑옷을 의미한다.

2) 재료 및 제작자

아기의 무산한 출생(出生)소식이 전해지면 친정에서는 산모(產母)가 떡을 미역과 배석자로 아기의 옷과 베개를 만들어 온다. 본도(本島)에서 해산(解産)은 반드시 시택에서 하도록 한다. 해산(解産)때 아기의 사망률(死亡率)이 높기 때문에 산모나 아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손(子孫)이 귀한 집일 경우 친정에서 해산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을 듣게 되므로 해산(解産)과 친정은 멀리 하였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무사(無事)하다고 한 뒤에라야 아기옷을 만드는 것이다. 아기옷을 만드는 친정 어머니도 다남(多男)·다산(多産)하고 복덕(福德)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조모(祖母)라든가 윗사람 중에서 만들도록 한다. 또한 미리 만들어 두지 않는데, 미리 만들어 두면 “삼신 할망이 헤꼬지 해서 송시나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무사히 태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자식에게 정성이 지극하다”하여 삼신 할머니의 시새움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옷감은 삼베로 하는 것이 상례(常例)였는데, 아주 드물게 명주(明紬)로 만든다는 예(例)가 있었다. 명주(明紬)는 상품(上品)이 아니고 집에서 짠 토명주(土明紬)였으나, 명주(明紬)로 만드는 이유는 “출생(出生)후 처음으로 입히는 첫 예복(禮服)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입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성인남자(成人男子)들도 최고의 예복(禮服)에는 명주(明紬)로 만들고 장가 갈 때라든지 호상옷(수의(壽衣))에도 명주(明紬)를 최고급으로 쓰고 있으므로 아기에게도 척 예복(禮服)이니까 같이 취급해야 한다. 또 통상예복(通常禮服)이자 최고의 예복(禮服)인 도포(道袍)도 길복(吉服)이거나 청금(靑衿)(향교에 출입(出入)하는 유학자를 칭함)들은 청도포(靑道袍)를 입기 때문에 아기의 옷에도 청색(靑色) 물을 들여 입히면 최상의 예복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9) 洪貞杓(男, 1905年生) 濟州市, 1975年談.

10) 高錫泌(男, 1887年生) 濟州市, 1977年談

삼베로 만들어 입히는 것”¹¹⁾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드는 사람을 택하여 복덕(福德)이 있어야 한다든가 하는 일은 대개 첫 자식이거나 장남(長男)·장손(長孫)일 경우이며, 차자(次子)부터는 윗 형에게서 물림 받는 일이 많다.

3) 형태 및 제작법

한복(韓服)의 적삼(赤衫)형태와 비슷하다. 베 홀으로 만드는데 주로 동정이나 깃이 없고, 쇠도 대부분 생략된다.¹²⁾ 옷고름은 실로 하는데 등 뒷중심에 달기도 하지만(사진1참조), 대부분은 앞섶쪽에 달고 한쪽은 허리를 한바퀴 돌리고 맬 수 있도록 길게 한다(사진3·4참조). 옷의 길이는 엉덩이 밑까지 길게 하는 것이 많은데, 길 경우는 대부분 뒷중심선을 조금 찢어서 엉덩이 부분에는 옷이 닿지 않도록 한다(사진 4참조). 이는 대소변(大小便)에 의해서 젖거나 더러워짐을 피하기 위함에서이다. 특히 이 옷의 특징은 타지방(他地方)에서와는 달리 소매길이의 장(長)·단(短)에 따라 남(男)·녀(女)를 구별짓고 있는 점이다.¹³⁾ 즉 남자용(男子用)은 촌소매(찬소매·온소매)로, 여아용(女兒用)은 반소매로 하여 만드는데 찬소매는 소매의 기장을 정할 때 삼베의 통폭 너비를 그대로 써서 길게 단 것이고, 반소매는 삼베의 반폭으로 소매의 기장을 짧게해서 단 것이다. 소매가 길 때는 소매 중간까지만 꿰맨다. 바느질은 옷의 솔기를 밖으로 처리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사진참조), 이는 솔기나 실밥이 살갓에 배기는 것을 막기 위함에서이다.

C. 붓뒤창옷의 특성(속성(俗性))

1) 인간(人間)이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첫 예복(禮服)이다. 없으면 빌려서라도 입어봐야 하는 옷이다.

2) 장인성과 인내심을 길러 주는 옷이다.

3) 피부병을 예방시켜 주는 옷이다.

4) 남아(男兒)의 것은 촌소매로, 여아(女兒)의 것은 반소매로 한다.

5) 첫째아들(장남(長男)·특히 장손(長孫))이 입었던 옷은 재수(운수)가 좋다.

6) 손(孫)이 귀한 집은 복덕(福德) 있는 노파(老婆)에게 속옷을 해서 입혀드렸다가 아기의 옷을 만들어 주면 좋다.

7) 낡은 것은 정(淨)하게 처리해야 한다.

8) 타인(他人)에게 양도(讓渡)하지 않는다.

3. 의식

A. 강한 생존(生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1) 金恩福(女. 1893年生) 南濟州郡 南原. 1977年談

12) 옷의 형태에 대한 古老들의 口傳에서는 “깃도 쇠도 없이 만든다”고 하였으나, 실물에서는 쇠과 깃이 달려 있는 것들이 많다. 사진1에서와 같이 깃과 쇠, 등바대까지 달고 단처리까지 한 완전한 赤衫형태를 갖춘것도 있다. 이 옷들은 男兒用인데, 역시 운수가 좋은옷이라는 사상에서 現存하게된 이유이다.

13) 筆者가 1986년 이후 陸地部를 조사하였으나 소매길이의 長·短은 性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다.

1) 생활고(生活苦)를 이겨 나가기 위한 체험 과정을 거치도록 합리화(合理化)시킨 지혜의 발로이다. 삼베의 거친 자극을 이겨 나가도록 함은 생존(生存)경쟁의 소산(所産)이며, 생활고(生活苦)를 이겨 내기 위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정신세계의 강인성과 함께 견디는 인내심을 길러주며, 피부병을 예방하는 매개체로 합리화(合理化)시키고 있으니, 이는 모든 것을 끝까지 버티고 이겨가는 자(者)만이 생존(生存)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제 팔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운(運)을 타고 났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도퇴되어야 되는 것이니, 삶을 극복하여 나가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다.

삼베는 오래전부터 본도(本島)에서도 생산(生産)되는 직물이며 기후상으로 봐서도 추운 지방에 비하면 피복(被服)감으로 선택되기에 적합하다 하겠으나 초생아복(初生兒服)에 이용되어지는 이유는 직물의 생산이라든가 기후적인 조건과는 다른 강한 의지의 일면에서 선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한 풍토(風土)와 정치적인 불모지 유배지로서의 제주(濟州), 출산금지령(出產禁止令)등에서 받았던 버려진 땅 사람들의 생활상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2) 피부병 예방

출생(出生) 후 3日만에 첫 목욕을 시킨 다음부터는 목욕시킬 형편이 따르질 못했다.¹⁴⁾ 따라서 청결치 못함에서 오는 갖 가지 피부염과 가려움증은 아픈 통증 때문에 몸을 비틀고 부비는 동안 거친 삼베의 조직에 의해 살갓에 묻은 오물피지(汚物皮脂)가 탈락하므로 피부병을 예방시켜 준다는 것이다.

3) 인내심과 강인성의 배양

피부병에 의한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심과, 피부와 삼베의 마찰에서 오는 고통을 참아내고 고비를 넘기면 피부에 면역도 생기고 웬만한 상처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의 고비를 초생아(初生兒)때부터 겪게함으로써 자라는 과정이나 성인(成人)이 되어 치러야 하는 많은 역경을 이기고 세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한 과정인 셈이며, 고통을 참는 동안 육체적인 단련은 물론 정신적인 강인성을 체험에 의해 스스로 터득케 하려는 지혜로운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B. 첫 예복화(禮服化)하고 있으며 반드시 입어봐야 한다고 믿는다.

“붓뒤창옷 입어 보지 못하면 저승가서도 사람 축에 끼지 못한다”든가, “아무리 어려워도 붓뒤창옷 만큼은 빌려서라도 입어봐야 한다.” 이는 인간(人間)이라면 반드시 이 옷을 입어봄으로써만이 인간(人間)이 되는 것이라는 데서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아기가 출생(出生)후 三日 아침에 산모와 아기가 목욕을 하고 아기에게 첫옷을 입히며, 삼신상에 올렸던 쌀과 미역으로 음식을 만들어 삼신할망상에 차렸다가 산모는 그 음식을 먹고 아기에게 첫 젖을 물린다. 할망상은 아이를 점지(點指)하여 무사히 낳게 해준데 대한 보답과, 앞으로 원만한 생육(生育)을 맡아주십사는 소망에서 차리는 것이다. 또한 이 일은 생후(生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의례(儀禮)이므로 반드시 초생아(初生兒)도 옷을 차려 입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예(禮)를 올리기 전에 목욕제계하고 의

14) 첫째는 일손이 바쁘기 때문에 育兒에 신경 쓸 여가가 없었으며, 둘째로 물이 귀했기 때문이다. 토질관계로 비가 오면 곧 물이 땅으로 스며버리기 때문에 냇물이나 강물이 말라버리고 따라서 음료수도 여자들이 등짐으로 길어다 먹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목욕을 시킨다든가 빨래를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관(衣冠)을 정제(整劑)함이 정성을 다 함이라 했으니 비록 관(冠)을 갖추지는 못했어도 새옷을 입음으로써 예(禮)에 정성으로 임하는 자세의 출발인 것이다.

C.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1) 출생(出生)직후의 피복(被服)

갓줄을 정리하고 나서 생후(生後) 처음 끄리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나 남성(男性)의 옷으로 싸야 한다. “저 아인 지네 어멍 갈중이에 끄려나시나 팡팡 잘 느껴지게.”라는 말이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잘 넘어지거나 다리에 힘이 없으면 어머니의 옷으로 아기를 끄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여자(女子)의 약하고 반쪽밖에 안 되는 모자란 기운이 아기에게 전이(轉移)되어 여성화(女性化)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후(産後) 여성(女性)의 옷은 철저히 금기(禁忌)되고 있다.

2) 붓뒤창옷 소매의 장(長)·단(短)

남아(男兒)의 소매는 온소매로, 여아(女兒)의 소매는 반소매라는 것은 남성(男性)은 완전한 인간(人間)이며 힘이세고 골격이 크고 의지가 굳고 대(代)를 잇는 종족(種族)번식의 기능을 가진 자(者)이지만, 여자(女子)는 본시 약하고 부정스럽고 반쪽 구실밖에 못한다는 존재이며 시집가서 남자(男子)집의 호적에 붙어서 그 집의 대(代)를 잇는 도구밖에 안 된다. 또 여자(女子)는 꿈에 보거나 새벽길에 붙어서 그 집의 대(代)를 잇는 도구밖에 안 된다. 또 여자(女子)는 꿈에 보거나 새벽길에 만나도 아주 재수없는 자(者)들로 비하(卑下)시키고 있다. 이런 온소매와 반소매 옷을 만든다든가 꼭 그렇게 입히는 경우는 대개 첫아이(첫아들)에게나 행하여 지고 있으며, 철저한 집안에서는 여아(女兒)가 입던 옷을 아래 동생인 남아(男兒)아가 물려 입히는 일은 철저히 금기(禁忌)하기도 한다.

3) 남아(男兒)(장남(長男), 특히 장손(長孫))가 처음 입었던 옷은 운수가 좋다 하여 행운(幸運)을 바라면서 이용하였으나 여아(女兒)의 옷은 효험이 없다 하여 쓰이지 않았다.

4) 그러나 여성(女性)의 천(賤)함을 빌미로 귀신을 기만(欺滿)하고 생(生)을 이르려는 의도에서 여성(女性)의 옷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주로 손(孫)이 귀(貴)한 집안에서나 있었던 일로 아이가 태어날 쫘미 되면 복덕(福德)있는 노파(老婆)에게 속옷(소중이)을 만들어 입혔다가 아이가 태어난 뒤에 그 옷으로 아기의 옷을 만들어 입히는 일이다. 귀신은 천(賤)한 것에게는 헤꼬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女性)의 채취가 묻는 옷을 입힌 자식은 천(賤)한 자식 또는 천(賤)한 것의 자식이라 하여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소중이 <사진7참조>는 본도(本島)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옷인데 바닷가 여성(女性)들이 입는 내의(內衣)로 지금의 팬티에 속한다. 본도(本島)에서는 농(農)·산촌(山村)을 양촌(兩村)이라 하여 양반(兩班)의 신분, 어촌 사람들을 포촌(浦村)사람 또는 개촌사람이라 하여 낮은 신분 취급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바닷물속에서 잠수작업(潛水作業)을 하는 여자(女子)를 ‘잠녀(潛女)’또는 ‘물보재기’라 하여 천하게 취급하였다. 그래서 혼인(婚姻)관계나 대소사(大小事)일에도 낮은 신분으로 취급되었으며 모임자리에서도 양촌(兩村)사람들이 먼저 윗자리(좋은자리)를 차지하여 앉고 나서야 포촌(浦村)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같은 좌석에는 있지 못했다.

어촌 여성들에게는 소중이 외에도 잠수작업시(潛水作業時) 바닷물 속에서 입는 물소중이가 있는데 형태나 제작방법은 소중이와 같으나 물소중이는 소중이에다가 잠수작업

에 편리하도록 끈을 단 점이 다르다(그림 8참조). 양촌(兩村) 여자(女子)들은 소중이를 입은 대신에 육지부(陸地部) 여자(女子)들이 입는 속곳을 입었다. 그러나 해방전후 양천(兩賤)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차츰 양촌(兩村) 여자(女子)들도 소중이를 입기 시작했으나, 비경제적이고 비활동적인 속곳에 비해 소중이는 매우 간편하고 편리하게 고안된 옷이기 때문이다. 그후 메리야스 제품이 흔하여지자 소중이를 입지 않았으나 현재도 노파(老婆)들의 호상옷(수의(壽衣))에는 반드시 소중이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메리야스 팬티를 입었던 노인(老人)들이 다시 소중이를 입기 시작하고 있다.

어젯던 간에 본도(本島) 여성(女性)들 중에서도 천한 사람 취급을 받는 보재기들이나 입는 속옷을 뜯어 아기의 첫예복으로 입힘으로써 천(賤)한 것의 명(命)과 운(運)으로 생(生)을 이으려는 것은 신충(神忠)나기¹⁵⁾와 일맥상통하는 일이다. 신충(神忠)나기는 명(命)이 짧고 운세가 사나운 아이를 무당이나 중에게 입적(入籍)시켰다가 자란 다음에(주로 15세까지) 퇴적(退籍)시키는 일이다. 이런 아이들은 자란 다음에도 그 들을 부모와 같이 생각하여 경사스러운 날이면 찾아 뵈는다든가 사후(死後)에는 두건(頭巾)이라도 써 준다.

D. 화(禍)를 기(忌)하고 복(福)을 희구(希求)하여 심리적(心理的)인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유사주술행위(類似呪術行爲)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임신한 여인(女人)들이 지키는 태교(胎敎)가 바른 육체와 바른 정신을 가진 건강한 아기의 출생(出生)과 성장(成長)을 기원하는 것과도 같다.

1) 아기옷에는 실옷고름을 단다.

아기의 옷고름은 실가닥으로 길게 다는 것은 실이 갖는 무한성 즉 장수(長壽)를 염원하고 있으며, 흔하게는 아닌지만 “옷고름을 실 일곱가닥으로 하여 달면 장수(長壽)한다.”는데 이는 “북두칠성(北斗七星)님이 생(生)을 점지(點指)하고 명(命)을 주관하며 또 죽은 뒤에도 칠성판(七星板)을 지고 북망산천 칠성(七星)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칠성님의 효험에 의지하고자 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2) 타인(他人)의 길운(吉運)을 전이(轉移)받고자 하는 기대가 크다.

무병장수(無病長壽)하고 다산다남(多産多男)한 노파(老婆)의 속옷으로 아기옷을 해 입히는 일, 또는 그런 집안의 옷을 빌려다 입히는 일, 특히 장남(長男) 장손(長孫)이 입었던 옷을 빌려다 입는 일 등은 그 집안이나 그 사람의 운(運)과 복(福)을 이어 받고자 함에서이다.

3) 재수 좋은 옷이기 때문에 그 효험을 믿고 행한다.

남아(男兒)가 입었던 옷은 재수·운수가 좋다 하여 매우 귀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함부로 내주지도 않는다. 특히 장남(長男)·장손(長孫)은 대(代)를 잇는다는 역할로서의 가문(家門)번창과 종족(種族)번식 욕구에서이겠지만, 또한 첫째라는 자리 개념 즉 윗사람 윗자리 앞자리 높은자리의 존귀성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들을 갖춘 옷이기 때문에 출정(出征)한다든가, 과거시험보러갈 때, 소송사건에 호출되어 나갈 때, 또는 특별한 중(重)한 목적(目的)을 수행함에 있어 출발할 때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반드시 좋은 운수가 붙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대개 본인(本人) 모르게 옷

15) 高富子 『濟州島の 育兒俗』 1977. 4 국제대학논문집. 4·5합집

의 등에다 등바대로 붙이거나 짐속에 챙겨 넣든지 한다. 얼마전 국회(國會)의원 유세 때 이 옷을 등바대로 달고 다녔는데 당선이 됐다는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입학 시험 때도 효험을 봤다는 예가 많다. 심지어는 놀음판에 갈 때도 붙이고 갔다는 예가 많다.

4) 타인(他人)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입었던 옷을 타인(他人)에게 양도하면 자신(自信)의 운(運)(길운(吉運))과 복(福)이 달아나 버리거나 또 타인(他人)에게 있는 나쁜 액운이 나에게로 전가되지만 않을까 하는 미심쩍음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잠깐만 빌려주고는 곧 회수한다. 가난하여서 붓뒤창옷 마련이 어려운 형편일 때는 있는자(者)가 선심(善心)으로 빌려주거나, 상대방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빌려준다. 이렇게 빌려 입은 자(者)가 무사히 잘 자랄 경우 빌려준 상대에게 항상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타인(他人)에게 양도하기를 꺼리는 것은 필자(筆者)도 경험한 일이다.

1971년(年) 민속조사(民俗調査)를 다닐 때 일이다. 성읍(城邑)의 어느 노파(老婆)에게서 모두 장성(長成)한 자식들이 입었던 낡은 옷을 양도 받고는 버스 정류소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맥의 며느님을 시켜서 “그 옷만큼은 안 되겠으니 돌려 달라”고 하길래 쾌히 반환하였다. 필자(筆者)도 조사하다 보니 이 옷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섭섭하거나 한번 더 간청해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옷이 그 다음 어떻게 처리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며 만약 젊은 이들에게서 쓸데없는 고물로 쓰레기통에 버려짐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다. 혹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집안의 아이들(모두 장성한 어른이지만 그 집의 후손들에게 사소한 불상사라도 생겼을 때 그 옷과 관련을 짓는다면 별로 탐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또 한 예(例)는 유복자(遺腹子)를 둔 외사촌(外四寸) 언니댁에서이다. 유복자(遺腹子)는 1943년생(年生)으로 현재 3남(男) 2녀(女)의 아버지며 다복(多福)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 유복자가 입었던 복뒤창옷을 손자에게 내리물려 입히면서 신주 모시듯 정성스럽게 다루었으니 어찌면 지금도 잘 보관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갔었다.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손손자까지라도 입히겠다”고 하면서 보여주기조차 꺼려하였다. 손자들은 병원에서 출산했지만 꼭 이옷을 입혔다면서 붓뒤창옷의 신비한 효험을 확신하고 있다.

신혼(新婚)에 남편을 잃고도 유복자(遺腹子)를 낳고 겨우 붓뒤창옷 하나 입히는 체 하고는 말 못할 고생을 한 끝에 그 아들이 장성하여 5남매의 손(孫)을 보았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이겠는가. 게다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마다 유복자 아들이 입었던 옷을 입혀 모두 건강하게 자랐으니 그 옷은 삼신할머니가 지켜주는 옷이요, 복두칠성님이 지켜주는 옷이며, 어찌면 일찍 사별(死別)한 남편의 넋이 함께 있는 옷인지도 모를 일이라고 믿고 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병원에 가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삼신할망이 꼭 지키고 있으며, 모든 일은 조상적부터 해오던 일이니 그대로 따르고 싶다. 요새는 좋은 옷들이 많지만 그 옷들은 모두 기계로 만들어서 시장 바닥에서 잡상인들의 손을 거쳐 사오는 것이므로 부정할 것도 있을 것이고, 모진 악한 운명을 지닌 사람의 손을 거친 것도 있을 것이니 싫다. 또 옛날처럼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조상(祖上)이 공들여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상(祖上)의 음덕(蔭德)도 없을 것이 아니냐.”고 한다.

5) 재수없는 옷은 물림을 하지 않는다.

옷을 입었던 아기가 죽거나, 또는 병(病)치레가 잦은 경우는 동생들에게 물림을 하지

않는다. 입었던 아기가 죽으면 아기를 묻은 무덤위에다 애기구덕과 함께 들을 엮어 버리거나, 또는 그곳에다 묻거나 태워버린다. 악한 잡귀(雜鬼)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걸레로 쓰거나 천하게 다루면 삼신할머니에 대한 반항이라하여 헤꼬지를 당한다.

즉 후손(後孫)을 주지 않거나, 어린아이들에게 화(禍)를 입히거나(“조희부린다.”“탈났다.”고함)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6) 물림 할 필요가 없어졌을 경우는 정(淨)하게 처리한다.

자손(子孫)들이 성장(成長)하여 옷을 물려 입힐 동생이 없거나 아주 낡아서 다시 이용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정(淨)한 장소·길(吉)한 방향(方向)에 가서 태운다. 역시 함부로 취급하면 삼신할머니의 헤꼬지를 당하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제주도민(濟州島民)의 초생아복(初生兒服)에 나타난 의식(意識)은 본도(本島)가 안고 있는 지역적(地域的)인 특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고립된 섬, 악천후(惡天候), 박한 토질(土質), 게다가 정치적인 불모지로서의 제주는 많은 노동요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부녀자(婦女子)들의 원한이라든가 속담 언어에서 충분히 그들의 삶을 알게 된다.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니 하늘에서 살릴 놈은 살릴 것이고, 명(命)이 짧은 놈은 일찍 죽을 것이고,” “박한 세상 살아 남아 봐야 고생이니 험한 세상 보기 전에 죽는 것도 복(福)”인 것이다. 그러니 3일동안 핏덩이를 아버지의 갈증이에 싸서 두고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도 살아남으면 ‘이제는 인간이 될 것인가’하는 기대에서 첫 시련을 통과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첫 3일 아침에는 삼신상을 차리고 목욕을 시켜 새 옷을 입힘으로써 인간됨의 첫관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입은 옷은 성인식(成人式)인 관례(冠禮)나 혼례(婚禮)때, 죽어서 저승 즉 염라대왕 앞에 갈 때 의관(衣冠)을 바로 차려 가 듯이 삼신할머니에게 처음 뵈는 일이니 첫예복을 입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者)는 1986년(年)부터 현재까지 국내(國內) 각(各) 지방의 통과예복(通過儀禮服)에 대한 조사 결과 본도(本島)와는 다른 점들을 찾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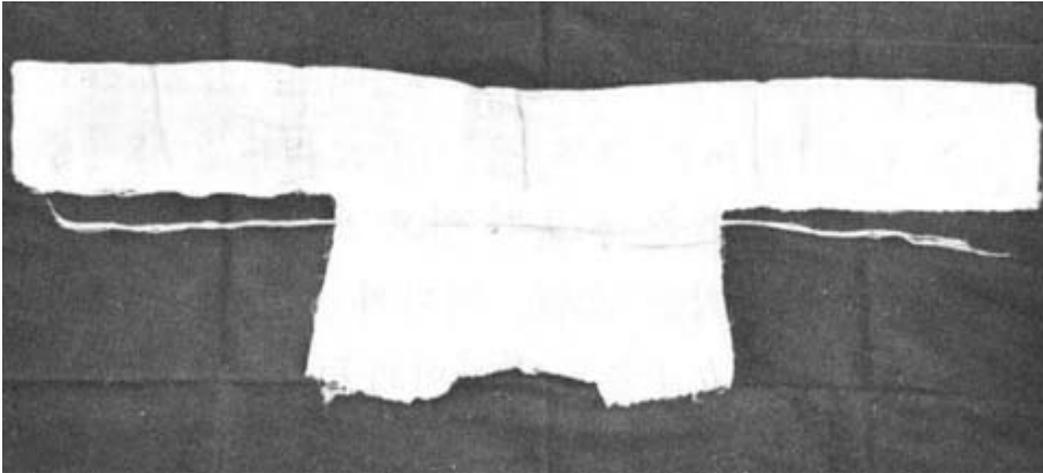
본도(本島)의 붓뒤창옷이 첫 예복화(禮服化)하고 있다든가, 재료가 거친 삼베가 이용되는 일, 삼베의 거친 자극은 강인성과 인내심을 기르며, 피부염을 예방시켜 주며, 소매의 장(長)·단(短)을 가려 남(男)과 여(女)의 존비(尊卑)차별을 둔다든가 하는 몇가지 사례들은 상당히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合理的)이고 호소력있는 현상들이다. 즉 삼베의 이용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의료(衣料)에 적합하다든가 피복 위생상·보건상의 문제에 적합하다든가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한결같이 피부병 예방이요, 인내심 강인성을 기르기에 알맞기 때문에 삼베가 쓰였다는 논리이다.

또한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요 명(命)이 긴놈은 살아 남고 짧은 놈은 죽는 것이지”만 이 옷을 통하여 유사주술행위(類似呪術行爲)의 효험을 믿고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촌소매와 반소매로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구별을 짓는 것은 조선조사회(朝鮮朝社會)의 한 단면을 반영시키고 있는 일이지만 “쇠로도 환생 못한건 제주 여자로 환생한다”는 천(賤)한 여성(女性)의 천운(賤運)을 업고 명(命)을 얻고자 하는 종족(種族)번식의 욕구도 찾을 수 있다.

본도(本島)가 안고 있는 특정 여건속에서도 초생아복(初生兒服)만이 아니라 노동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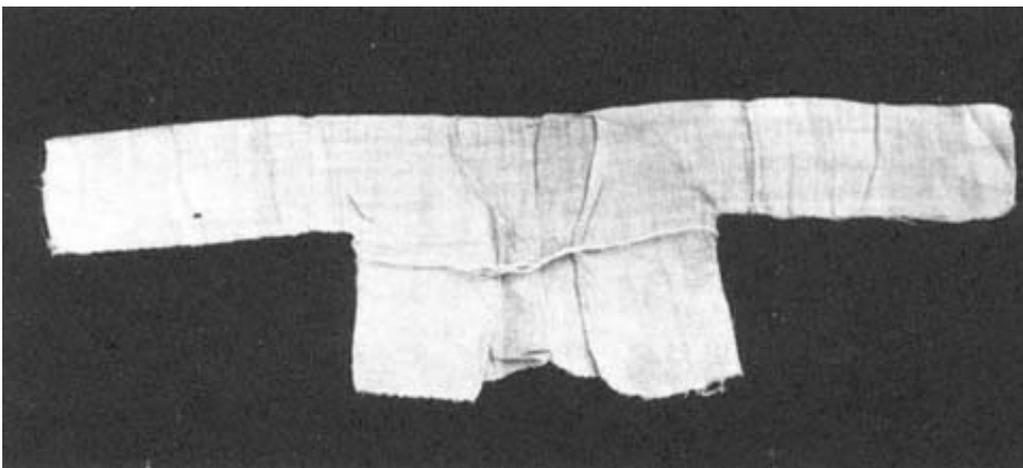
갈옷이라든가 잠녀복(潛女服)인 물소중이의 개발등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알맞게 고안해 낸 최고의 걸작품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왔다. 더욱이 초생아복(初生兒服)은 생(生)의 출발(出發)이 축복과 기대속에서의 시작이 아니라 생존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철저한 항거적 자세에서 출발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이는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환경에 적응해나가기 위하여 합리성을 부여시켜야만 했던 과거 제주 섬 사람들의 생활상을 잘 반영시키고 있는 일례(一例)라고 본다.



(사진 1)

בות뒤창옷 : (사진 2의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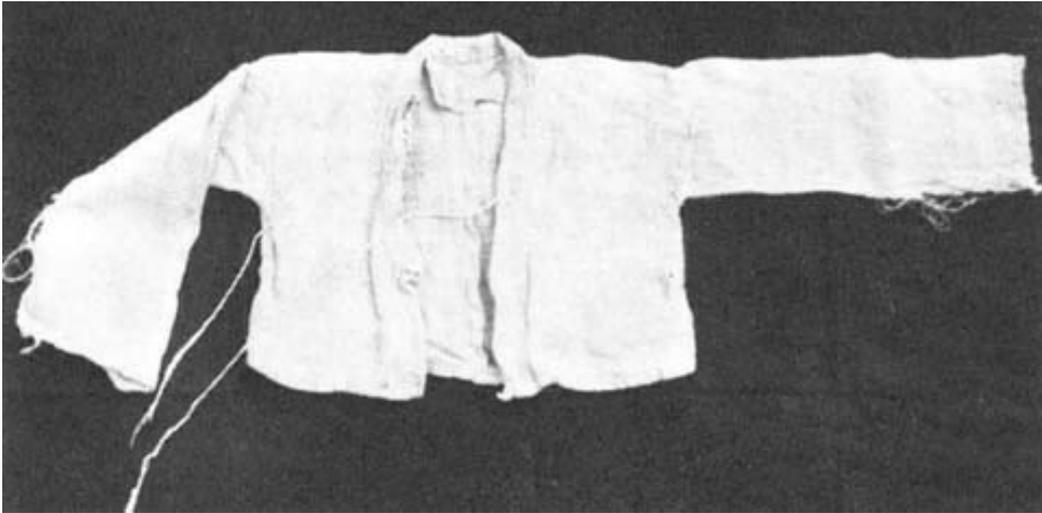
- 옷고름(실고름)을 등중심에 달았다.
- 솔기를 밖으로 처리하였다.



(사진 2)

בות뒤창옷(사진1의 앞면) : 남아용(男兒用). 온소매

- 뒷중심에 단 옷고름을 앞으로 매도록 하였다.
- 깃과 셔이 없다.
- 소매 수구의 끝쪽은 바느질을 하지 않고 두었다.
- 소매끝과 도련은 감침질로 처리하였다.



(사진 3)

붓뒤창옷 : 남아용(男兒用). 온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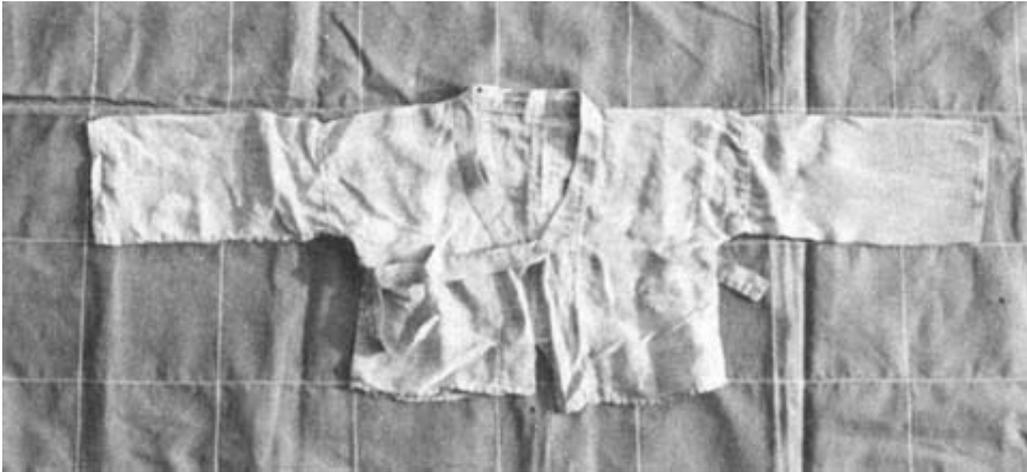
- 깃과 쇄, 등바대를 붙였다.
- 실고름을 달았다. (한쪽은 길게 하였다)
- 소매 수구쪽은 터놓고 소매 중간까지만 막았다.
- 소매 수구와 도련은 꺾어서 감침질 했다.



(사진 4)

붓뒤창옷 : 남아용(男兒用). 온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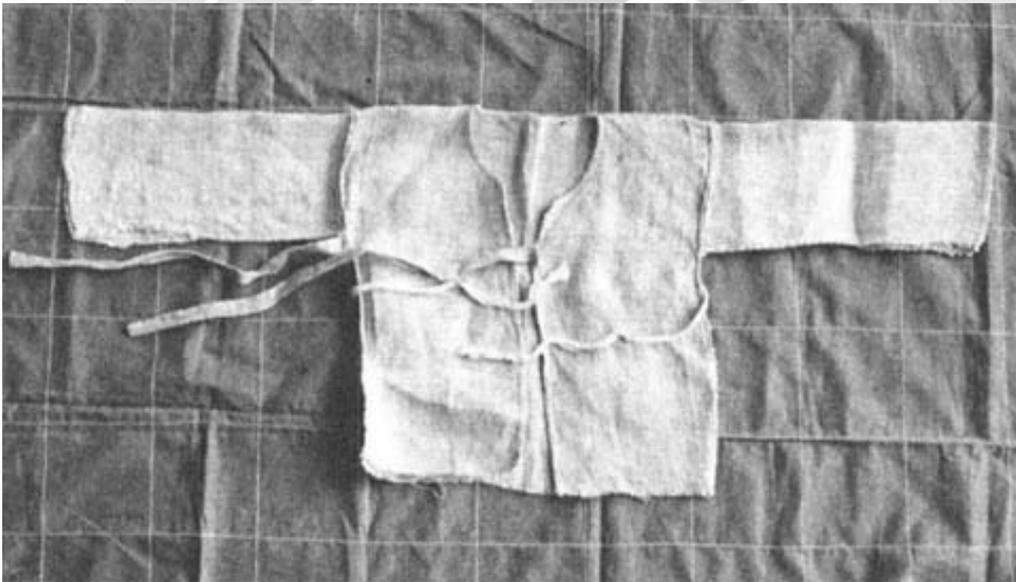
- 깃이 달려 있다.
- 한쪽 실고름이 길다.
- 소매, 수구, 도련, 앞쇄은 감침질로 했다.
- 뒷중심선이 찢어져 있다.
- 소매 중심까지만 바느질하고 수구쪽은 터 놓았다.



(사진 5)

붓뒤창옷 : 남아용(男兒用). 온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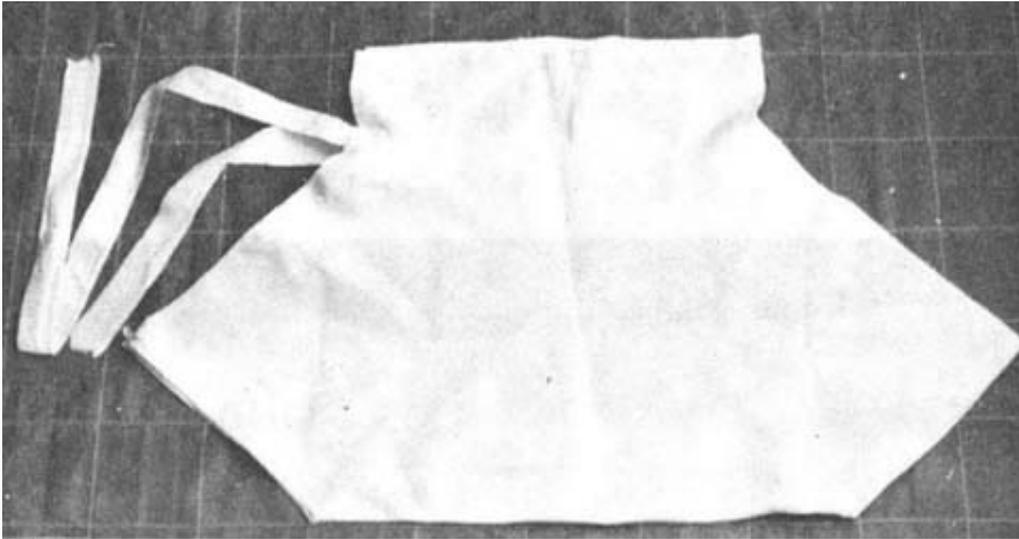
- 앞섶에는 베고름을 달았다.
- 뒷중심선이 조금 찢어져 있다.
- 깃과 섶을 달고 도련도 감칠질로 처리하였다.



(사진 6)

붓뒤창옷 : 남아용(男兒用). 온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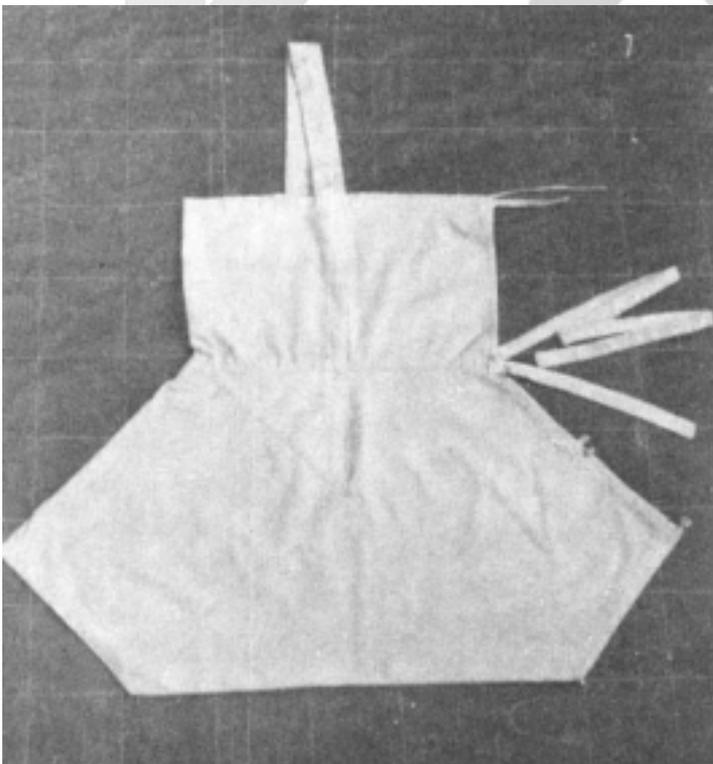
- 뒷중심선에 실고름을 달고 앞섶에는 베고름을 달았다.
- 깃과 섶이 없으며 도련은 감칠질로 했다.
- 소매 수구쪽을 중간까지만 막았다.



(사진 7)

소중이 : 여성용(女性用)속옷

- 허리기장이 짧다. (여성용(女性用)속옷)
- 옆선이 트여있다.(끈과 매듭단추를 담)



(사진 8)

물소중이 : 잠수작업용(潛水作業用). 잠녀용(潛女用)

- 허리기장이 길고 어깨끈이 달려 있다.
- 옆선이 트여 있다. (끈과 매듭단추를 담)